



라면

대현중 2-8 박민찬

땡-동.

“어서 오세요.”

그날따라 나는 유독 라면이 먹고 싶었다.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친한 친구를 이끌고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. 낡고 허름했던 그 편의점이 풍기는 낯선 향기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라면을 먹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단념시키기에는 부족했다.

“혹시 라면은 어디에 있습니까?”

키가 크고 수염이 덩수룩한 그 노인이 가리킨 곳으로 가보니 과연 라면이 있었다.

“근데 뭘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노.”

친구가 한숨을 쉬며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. 정말이었다. ‘라면’으로 끝나는 그 오묘한 용기에서 알 수 없는 괴리감이 느껴졌다. 마침내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찾은 그는 나를 향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.

“야, 빨리 골라라. 배고프다.”

그제야 정신을 찾은 나는 오른쪽 맨 위에서 둘째 칸에 있던 라면을 손에 쥐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었다. 수없는 라면을 먹어본 나지

만 몇 년 전부터 입맛에 맞는 그 라면만을 계속 먹어왔었다.

뭐지. 진열대에 놓여진 처음 본 라면. 뭐 이런 라면이다 있나 하고 계산대로 발을 옮기려던 찰나, 아까 그 노인이 다가왔다.

“뭐 찾으시는 게 없습니까?”

“아니요. 근데 뭐 라면이 이렇게 많습니까?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놔두이쇼. 이런 라면 누가 먹는다고 참.”

그 말에 노인은 주름을 펴고 허허하며 웃는 게 아닌가.

“그 말, 한 번만 더 들으면 백 번째요.”

나는 아차 싶었다. 계산대에 먼저 가 있었던 친구가 그 말에 뒤를 돌아본 순간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.

“나도 처음엔 그랬어.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이 없다고 가 버리더군. 다른 라면을 먹어도 될 텐데 말이야.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들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. 직접 먹어보는데 정말 맛이 다 조금씩 다르더군. 난 라면은 다 비슷해서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건 줄 알았거든. 그 라면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비록 그제 한 명뿐일지라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기에 그 라면은 존재를 잃지 않고 남는 거야. 이렇게 말이지.”

노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내가 낯설을 느꼈던 그 라면들이 있었고,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얼떨떨했다. 노인의 옆은 미소에는 나의 뒤통수를 꺾치는 듯한 그 무언가가 있었고, 그렇게 계산대로가 바코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. 머릿속에는 얼얼한 기분만이 남을 뿐. 그 길로 친구와 나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. 싱그러운 햇살 아래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. 배고프지 않았다. 라면이 눈에서 불어가고 있을 때쯤 친구가 소리쳤다.

“야! 라면 다 불겠다!”

그 말에 나는 허겁지겁 나무젓가락을 꺼내 면을 올렸다. 따뜻했다. 라면의 짠 내음이 젓가락질을 계속하게 만들었다. 그렇게 거의 다 먹어가던 그때, 친구가 말했다.

“우리 지금은 좀 힘들어도, 분명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?”

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실패, 좌절, 외면 그 모든 것을 겪었던 나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.

“그럼 당연하지.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.”

자리에서 일어나니 오금이 저려왔다.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고, 파릇파릇한 새싹을 바라보았다. 아름다웠다.

